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4 1112

Vol. 108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Hello 닥터_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이원경 교수 Medical point_ 예방관리센터 Health touch_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사업





04



18



32

인하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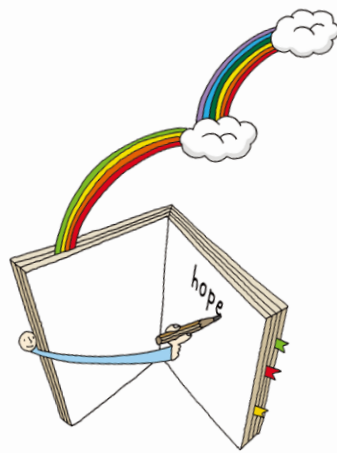
Nov
+
Dec 2014 Vol.108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 희망을 쓰다

‘난 산다’ 라는 문구를 매일 같이 써나갈 것이다.
만약 내가 쓰지 못하는 날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포기의 뜻이 아닌
잠시 몸이 불편해진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대신 누가 날 대신하여 계속 써주면 된다.
하루에 한 문구
‘난 산다’



난 지금에야 깨달았지만
만약 이 병 걸리지 않았더라면
말의 소중함도
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고마움도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신기함도
팔과손 그리고 다리가 있어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였겠지요.

박승일 / 이규연 | '눈으로 희망을 쓰다' 중에서

건강 한 걸음

- 04 **Hello 닥터** 예방관리센터 이원경 교수
- 06 **Medical point** 예방관리센터의 역할과 비전
- 09 **Health touch**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사업
- 12 전립선암
- 14 **Today INHA** 유방암 다학제 진료
- 16 집중 영양치료

사랑 두 걸음

- 18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1 - 북성동
- 22 **Special people** “승일희망재단” - 루게릭 투병 박승일 전 코치
- 24 **모르면 지는거다** 따뜻한 겨울차

나눔 세 걸음

- 26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⑦ - 환자안전 시스템 재점검
- 29 **톡톡 약물상담** 폐렴구균 백신
- 30 **INHA Focus** 인하사랑 공모전 수상작
- 32 **인하섬표** 카자흐스탄 의료봉사
- 34 희망의 선물
- 35 **병원 탐방** 새울재활요양병원 / 강종권 원장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건강교실 + 전시회 및 공연 + 발전기금 후원현황
- 39 **Info desk**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파랑새 소식



표지_ 이훈재 예방관리센터장·이원경 교수 |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인하대병원보 2014년 11·12월호(통권 제108호) 등록번호 인천마01031 발행일 2014년 11월 3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 홍보팀 디자인 테크포스 인쇄 금강프린텍 인하대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032)890-2603 팩스(032)890-260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게재된 글과 이미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방관리센터 이원경 교수

예방이 답이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2014년, 새삼 이 속담이 많이 생각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100세 장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학에도 과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개개인 맞춤형 의학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길목에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이원경 교수가 있다. 평상시 풀풀이
안경과 운동화 차림의 이 교수는 오늘
퍼플 블라우스와 메이크업으로 변신
하였다. 예방관리센터를 ‘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묻어난 것일까?

에디터_ 이정희
포토그래퍼_ da view studio 송인혁 실장

Profile 이원경 교수는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의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학박사)을 졸업하였다. 2006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010년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의료실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전공의를 거쳐 현재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환자를 위한 맞춤형 예방관리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내 예방관리센터는 심뇌혈관질환 환자 및 위험요소를 가진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뇌졸중, 심근경색은 유전, 생활습관, 선행질환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감염 질환보다 예방하기 훨씬 복잡한 중증질환이다. 몰라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질환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차원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특징이다.

“재발 후 입원하신 분을 찾아가서 재발 위험과 관리 교육을 해드리면 왜 첫 번째 입원했을 때는 안 해주었느냐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에 대한 반응이 좋을 때 저희 팀에서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죠. 교육전문간호사들이 찾아가면 이런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간혹 약이나 보험 상품을 팔러 온 줄 아시고 경계하는 환자분도 계시고, 외로운 병상에서 오래 계셔서 계속 말씀하고 싶으셔서 놓아주지 않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예방관리과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하는 외로운 과정일지도 모른다.

2012년 11월 인하대병원이 인천권역센터로 지정되면서 예방관리센터의 창립멤버로 첫발을 시작한 이원경 교수다.

“특히 우리 예방관리센터는 환자 진단이나 치료와 같이 기존의 업무와 관계가 없어서 팀원 각자의 존재를 알리고 인정 받기까지 많은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다른 특성화센터와 달리 다양한 임상과가 참여하고 있어서 운영하기가 훨씬 복잡하고 힘들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게 해준 팀원 모두에게 평소 표현은 못했지만, 참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본격적인 예방관리 시스템 세팅으로 다양한 사업 시도할 터

이원경 교수는 현재 증축공사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예방관리 시스템 세팅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이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시 빨리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남은 삶을 최대한 건

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관리센터의 목표다.

지난 시간 이훈재 센터장과 함께 예방관리센터를 이끈 작은 거인 이원경 교수,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다.

환자와의 직접 치료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 된다면.....

센터장인 이훈재 교수와 함께 팀을 이끄는 이원경 교수는 예방관리센터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온전히 쏟느라 틈새 시간이란 당분간 꿈꿀 수 없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그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것, 이원경 교수는 여기서 자신이 의사가 된 의미를 찾는다.

“만성질환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닌 만큼 생활습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운동하셔야 한다, 체중조절하셔야 한다’ 고 하면, 1~2kg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는 듯한 환자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내가 나 자신도 못 바꾸면서 남들한테 쉽게 이야기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민망할 때도 있어요. 일상생활 하면서 건강생활습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하면서 좀 더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하려고 노력해요.”

환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은 이 교수는 미래의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환자와 ‘공감’ 하는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안정적인 전문가의 입지를 추구하기보다는 의사가 되어 베풀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에 삶의 무게와 가치를 두고 말이다.

여러 권역센터의 행사로 올해 배우기 시작한 바이올린이 유일한 취미라는 이원경 교수. 만일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파티세가 되어서 자신이 만든 것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의사와는 또다른 기쁨을 느낄 것 같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어느 모습이건 이원경 교수에게 천상 멋진 삶은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완성된다.



심뇌혈관질환
쉽게 이해하고
'바로 알기' 총력전!

인천지역은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우리가 지킨다!

당장 가시적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

인하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인천지역 거점병원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의 건강한 심장과 뇌를 위하여 예방관리센터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_ 이원경 교수 /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예방관리센터의 취지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근경색, 뇌졸중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선정한 거점병원입니다. 양질의 급성기 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외면받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점병원으로 요구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병 후에는 잘 관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방관리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구성 요소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체 센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사무국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센터의 역할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예방 관리에는 무엇보다 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환경에서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도 원하는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교육전문간호사들이 직접 교육을 제공하여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센터의 영향이 인하대병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으로 파급되도록 인천의 의료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알리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시민들을 위하여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위험요인과 증상들을 알리고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내원하여 골든타임 내 치료받아야 함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육홍보활동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인천지역을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센터의 구성원

예방관리센터는 교육, 홍보, 사업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2명으로 예방의학 교수 2명, 교육전문간호사 총 6명(심혈관 교육전문간호사 1명, 뇌혈관 교육전문간호사 3명, 심뇌재활 교육전문간호사 1명, 예방관리전문간호사 1명)을



여러 행사 및 축제에서 홍보캠페인 운영

비롯하여 총괄 간호사, 행정, 홍보담당, 임상영양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방관리센터의 활동

입원환자 교육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심뇌혈관질환의 원인, 발생기전, 치료 및 향후 관리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교육전문간호사들이 1:1로 제공합니다.

퇴원환자 교육 및 추적관찰 모니터링 심근경색, 뇌졸중은 재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퇴원 후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치료 의지를 높이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퇴원 후 1개월, 3개월, 12개월 되는 시점에 교육전문간호사들이 전화로 추적관찰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습관 개선 정도와 투약순응도를 점검하고 치료 및 관리를 지속하도록 지지요법을 시행합니다.



혈관 건강과 관련한 무료 검사 및 상담 제공

지역사회 교육 보건소 등록관리를 받고 있는 당뇨병, 고혈압 주민들을 찾아가 심뇌혈관질환 바로 알기 및 예방수칙,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구급대원 대상으로 흉통환자 심전도 해석 및 뇌졸중 선별검사법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여서 인하대병원 내원 환자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교육자료 개발 어렵고 딱딱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합니다. 2014년 11월 현재 '바로 알기' 시리즈의 소책자 9종(심근경색, 뇌졸중, 뇌재활, 항응고제, 고혈압, 당뇨, 욕창 예방관리, 심장재활 운동, 심장재활 바로 알기), 리플렛 5종(심뇌혈관질환 증상 및 대처법, 고지혈증, 싱겁게 먹기, 금연, 항응고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의 질 향상 및 표준화를 목표로 달력형 자료, 파워포인트 교육자료 및 표준강의지침서를 만들어서 병원 내외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개발 및 송출 심근경색, 뇌졸중의 이해와 조기 증상 및 대처법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및 심장검사에 관한 동영상 11종, 뇌혈관질환 골든타임 및 치료법 5종, 보호자

도 할수 있는 재활치료 55종을 제작하였으며, 예방관리와 센터 소개에 관한 내용도 제작 중입니다. 이러한 동영상은 지역방송 및 주요 마트, 지하철에서 송출하여 인천시민들이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발생 시 빨리 인지하여 골든타임(3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보캠페인 라디오캠페인 및 공개강좌 외에도, 여러 행사와 축제에 직접 홍보 캠페인을 운영하여 가능한 많은 인천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는 혈압, 혈당, 고지혈증, 체지방 분석 등 혈관 건강과 관련된 검사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재미있는 퀴즈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흔히 하기 쉬운 오해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예방관리센터의 미래
심뇌혈관질환 관리법과 예산에 대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발전의 안정적인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완공되면 다양한 교육실과 간병술기실을 기반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면 어느덧 인하대병원 환자, 더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혈관이 건강해져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 봅니다.



경기장 전광판 활용한
조기증상 인지도 홍보사업의
새장을 열다!

골든타임? 조기증상 알아야 OK!



이하대병원은 인천 권역의 각종 보건 사업을 선도하며 다져온 지역 네트워크와 홍보활동의 창의적 노하우를 인정받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조기증상 인지도 홍보사업 특화센터' 로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제시하도록 올해 초 주문받았다. 이에 목표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SK 와이번스 문학구장과 인천유나이티드 FC 도원구장에서 경기장전광판 조기증상 공익광고는 최근 정부로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최우수 사례로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글_ 이훈재 교수 /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도 홍보사업

예방관리센터장인 필자는 종종 심뇌혈관질환을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비유한다.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하면 흔히 생활습관의 서구화나 영양과잉이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는 다소 간극이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은 실제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되기도 하며,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조기사망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다른 질병들에 비해 훨씬 크다. 그러나 제대로 예방관리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심뇌혈관질환은 분명 후진국형 질병인 것이다.



전국 최초로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공익광고 송출

어떤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따져보고자 한다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인천의 현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17개 광역시도의 통계를 검토하곤 한다. 심뇌혈관 질환도 이런 접근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와 인천광역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평균수명은 건강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수명 자체는 긴 편이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81.4세인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0.1세보다 1.3세가 긴 것이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기간 중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우리나라가 매우 짧은 편이다. 최근 발표된 어느 연구보고서의 결

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은 대략 66세로 평가되고 있다는데, 이는 사망하기 전 15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타 OECD 국가들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차이가 대부분 10년을 넘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짧게 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 바로 심뇌혈관질환인 것이다.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비교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보다 무려 1.7배가량 높기도 하고, 뇌졸중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뚜렷하게 높은 곳이 바로 인천권역이다. 인천권역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다른 광역시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특이하게도 뇌졸중과 당뇨병과 같은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심장질환 사망률 또한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얼마든지 예방 가능하다고 하는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높은 것은 결국 증상 발생 후 초기 치료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보건당국에서는 특히 노인 연령층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초기 증상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만 해도 70% 이상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에서는 2008년경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차례로 지정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며, 인하대병원을 끝으로 전국 11개 주요 권역에 센터설치를 완료한 것이다.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각기 해당권역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구축, 중증 심뇌혈관질환 초기증상 인지도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는 중이다.

한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하대병원이 그간 인천권역의 각종 보건사업을 선도하며 다져온 공고한 지역 네트워크와 홍보활동 관련 창의적 노하우 경험을 인정하여 ‘조기증상 인지도 홍보사업 특화센터’로서 다른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 확산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제시하도록 올해 초 인하대병원에 주문한 바 있다.

인하대병원의 창의적 발상과 성과 -

경기장 전광판을 활용한 조기증상 인지도 홍보

정부는 인하대병원이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의 적임자



공익광고 효과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축구동아리 학생들

라고 판단을 하여, 시설설치비와 초기 증상 인지도 홍보사업비 등 운영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증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인천권역의 자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일 것이다. 제 아무리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좋은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이 24시간 배치되었다 하여도, 골든타임을 지체하게 된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증상이 나타난 환자라면 바로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과 같은 전문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초기 증상을 알아야 한다.

인하대병원이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될 무렵,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심뇌혈관질환 초기증상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전 국민 표본집단의 12.5%만이 ‘뇌졸중 초기증상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심근경색증의 경우 10.5%에 불과하였다. 전국에서 뇌졸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인천시민의 경우 뇌졸중 초기증상 인지도 또한 10.2%로 전국에서 최하위였다. 인천권역의 높은 뇌졸중 사망률은 우연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인하대병원은 창의적 발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인천권역의 뇌졸중 초기증상 인지도는 전국 평균 대비 2.3%p 정도 낮은 것인데, 인지도 홍보활동을 통해 이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면 5만 명 가량의 시민이 조기증상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

이다. 다른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선방송, 버스, 지하철 광고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홍보매체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민과 논의 끝에 인하대병원 은 시민 군중이 운집하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공익광고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경기장 전광판 공익광고는 SK 와이번스 문학구장과 인천유나이티드 FC 도원구장에서 2014년도 시즌 전 경기 중 진행되었으며, 연인원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2~3회씩의 반복적인 홍보광고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경기장 전광판 공익광고 효과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기장 입장 관객의 경우 일반 시민들에 비하여 조기증상 인지도가 2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인지도 홍보활동이 벌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지도 홍보사업의 새 방향을 제시한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경기장 전광판을 활용한 조기증상 인지도 홍보사업은 보건분야에서 의미 있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략적인 홍보와 근거에 입각한 사업추진의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14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평가결과’ 인하대병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경기장 전광판 등을 활용한 조기증상 인지도 홍보’는 전국 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중 최우수 사례로 인정되었다. 이에 필자는 11월 27~28일간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4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 관계자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게 되었다.

또한, 12월 5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회의 중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인지도 홍보사업’은 여타 센터로 확산할 만한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기도 하다.

인하대병원은 맨 마지막으로 전국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핵심사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조기증상 인지도 홍보사업’의 새로운 장을 앞장서서 열고 있는 것이다!!

●문의 : 예방관리센터 ☎ 032-890-2197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정기적 검사가 중요한 전립선암의 맞춤형 치료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며, 미국 남성의 암 질환 중 세 번째로 사망률이 높다. 유명한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 벨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우리나라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전립선암 치료를 받았다.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남자라면 누구나 전립선암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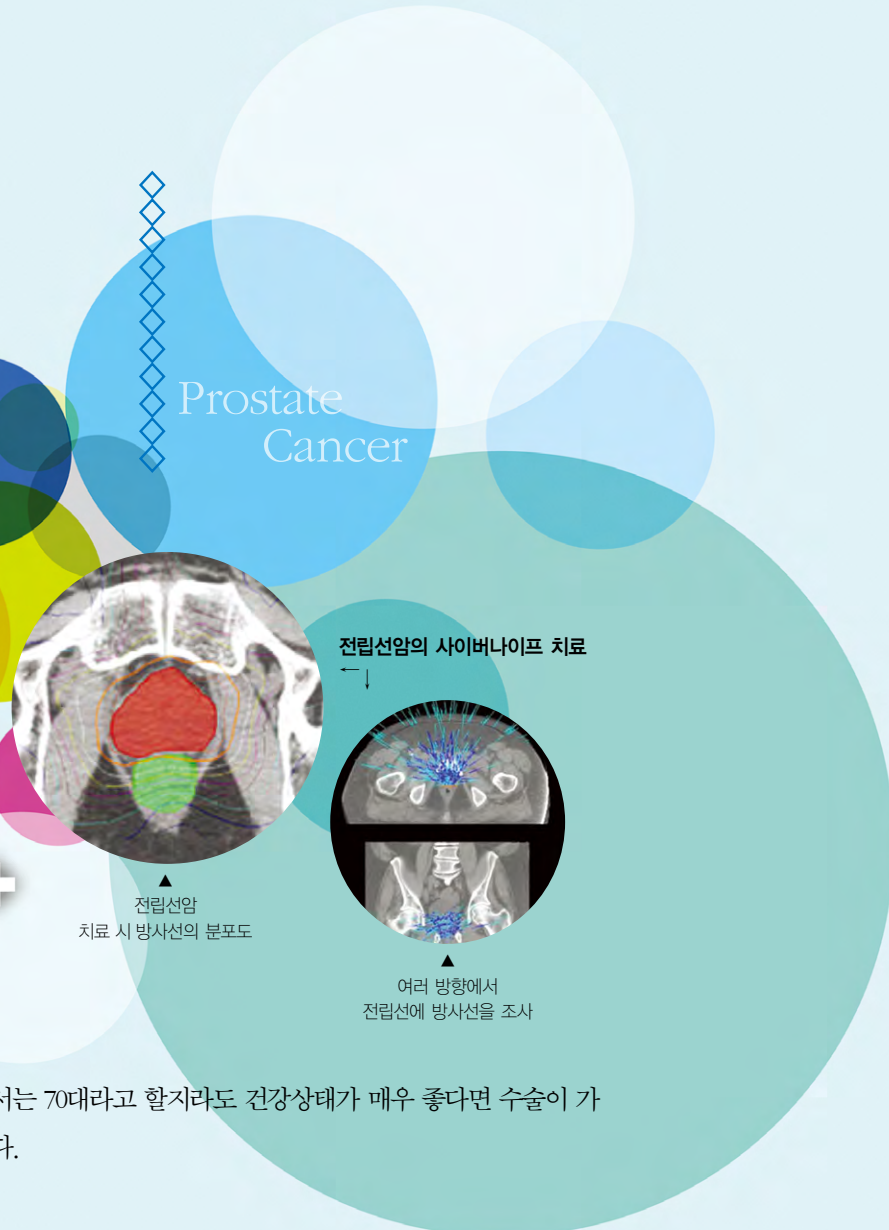
글_ 윤상민 교수 / 비뇨기과



특별한 증상 없어 조기발견 어려운 암

최근 서구식 식생활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립선암은 특별한 증상 없기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평소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암 조직이 커지면서 배뇨에 지장을 받거나, 전립선암이 뼈 등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골 통증이 나타난 후이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건강검진의 확대로 인하여 조기에 전립선암이 발견되어 치료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초기 암은 완치할 수 있지만 증상이 거의 없거나 의심할 만한 초기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종양의 병기와 암세포의 분화도, 혈액 PSA수치, 환자의 연령과 가족 상태를 고려해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립선암의 치료방법에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방사선 치료, 기대요법, 호르몬 치료, 새로운 약물 및 항암 화학 요법, 통증 조절을 위한 초점 방사선 요법 등이 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에 가장 적합한 환자는 완치 가능한 암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신체를 가진 40 ~ 60대 환자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70대라고 할지라도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면 수술이 가능하다. **로봇 수술로 발기부전 및 요실금 발생률 감소** 전립선암은 비교적 진행이 느리지만, 전립선이 우리 몸 깊숙한 골반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고, 신경과 혈관이 조직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며 요도 괄약근과 방광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발기부전 및 요실금 등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만큼 정교함이 필요한 수술이며 모든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이나 요실금과 같은 부작용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느냐에 치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수술 방법으로 최근 개발된 것이 로봇 전립선 절제술이다. 이 시술의 주된 장점은 섬세함과 정교함이다. 실제보다 10배 이상 확대된 3차원의 입체 환경 속에서 정밀한 로봇팔을 이용해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 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시술 시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이 짧아져 빨리 사회생활로 복귀해



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혈액 손실이 적고, 도뇨관 유치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로봇 수술은 전립선암 수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발기부전 및 요실금 발생률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아직 로봇 수술에도 단점은 있다. 현재 수술용 로봇이 매우 고가이며, 로봇팔에 장착되는 소모품의 사용횟수가 제한되어 높은 수술비용의 부담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점차 개선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로봇 수술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다.

대사성 질환 또는 요실금, 발기 부전이 걱정된다면 편안하고 안전한 사이버 나이프 치료

연령이 많은 환자인 경우 젊은 환자에 비해 수술에 관련된 부작용 특히 요실금, 발기부전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치료법이 방사선 치료이나 이 경우도 수술보다는 적지만 피로감과 배뇨증상, 직장 관련 증상, 발기력 감퇴 등이 보고 된다. 이런 부작용을 개선한 사이버 나이프 (Cyber Knife)는 입원 없이 통원 치료와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한 기기로 첨단 로봇 기술과 컴퓨터 기술을 방사선 치료에 접목한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사이버 칼인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은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쏘여 종양을 괴사시키고, 주변 조직에 방사선을 노출 시키지 않아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립선에는 방사선량을 높여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심각한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젊은 환자라도 요실금, 발기부전 등이 걱정된다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다.

전립선암의 치료, 여러 가지 환자 맞춤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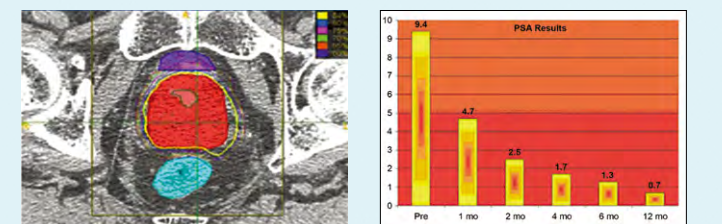
조기에 전립선암이 발견될 경우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 치료에서는 초기 전립선암의 경우 사이버 나이프 치료를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 시 삼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보험에서 한 단계 진화된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를 보험급여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방사선치료 방법은 전립선을 포함하여 넓은 부위에 방사선이 조사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방광 같은 주위 조직으로 방사선에 의한 염증이나 궤양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있다. 사이버

나이프의 경우 전립선 부위에 정확하게 방사선이 조사되어 주위 장기로 방사선이 조사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사선치료 보다 각 치료당 2-3배 정도의 방사선량을 조사함으로 치료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 단 사이버 나이프로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 전 전립선에 사이버 나이프가 전립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금침을 삽입하는 시술을 먼저 해야 한다. 그다음 치료법은 호르몬 치료이며 이 경우 대부분의 전립선암이 1년 반 내지는 2년 정도는 진행이 멈춘다. 그러나 그 후에는 호르몬 불응성 암(Hormone Refractory)으로 진행된다. 호르몬 불응성 암인 경우는 항암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최근에 많은 항암 약제들이 개발돼 실제 많은 환자에게 쓰이고 있다. 이처럼 전립선암의 치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수술 - 출혈, 통증 없고 바로 정상 활동 가능, 발기 부전도 거의 없어

초기의 전립선암 환자들에게는 수술적 치료,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또는 조직 내 근접조사치료가 시행되어왔다. 이런 치료들 중 기존의 방사선치료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치료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방사선치료를 최소한 7주 이상 매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수술은 치료기간이 5일 이내로 짧다는 것과 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더욱 줄였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즉 주위의 직장, 방광 등의 정상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치료 할 수 있다.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수술적 치료와 비교할 때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수술은 치료 후 바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수술로 인한 출혈, 통증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발기 부전도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치료를 할 때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치료 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립선암 추적 인자인 PSA 수치로 본 사이버 나이프 치료 효과]



사이버 나이프 치료 후 추적 인자인 PSA의 수치가 계속적으로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다.

환자와 가족, 모든 의료진의 상호교환 최선의 의료를 통해 최고의 효과를 높여라!

유방암 환자에게 있어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는 목적은 암 치료에 있어서 전신치료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치료가 도입되지만 수술치료는 여전히 중요한 치료로 이들 치료의 방침을 설정하는 데 있어 치료방법의 선택뿐 아니라 치료의 순서 또한 중요해 이를 정립하는 데 있다.

글_ 조영업 교수 / 외과_여성암센터



인하대병원 유방암 의료진, 자발적인 시행방법 모색

각 환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술의사와 전신치료를 담당하는 종양내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의사가 함께 치료의 방침과 순서를 정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여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하대병원에서의 다학제진료는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여 실시하기 전부터 오랜 시간 준비해왔으며, 이는 병원 내 유방암 관련 여러 의료진과 함께 모여 환자와 환자가족과 의견을 교류하며 진단과 치료방향을 정립하여 올해 병원 내 정책에 따라 확대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다학제 진료라 함은 여러 전문진료과목의 전문의와 해당 의료진, 예를 들어 종양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정신건강상담사, 유전상담사 및 사회사업사가 함께 모여 진료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하대병원 유방암 의료진은 일찍이 이에 대한 유용성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시행방법을 모색하여 이상적인 다학제 진료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핵심 진료과 의료진이 함께 참여

유방암치료에 관여하는 의료진은 최소 매달 2회 집담회를 통해 증례토의와 최신지견을 나누어 왔으며, 2010년 1월 기존의 유방암 집담회를 확대 개편하여 다학제 진료 관련 회의를 시작하여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유방암 진료팀으로 명칭하여, 2012년 11월 1일에 첫 다학제 진료를 시작하였다. 초기 유방암 의료진은 현재도 주요 진료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병원 내에 암 상담실이 개설된 후로는 이들 인력도 함께 진료과정에 참여하고, 유방암 수술 후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사업사와 영양사도 필요하면 진료에 함께 임하고 있다.

이처럼 준비된 다학제 진료팀인 인하대병원 유방암 진료팀은 초기 진단과정부터 참여하여 수술 전후의 치료에 관여하며 치료 후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재발 및 전이의 경우에 유관 전문 진료과(예: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함께 진단과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치료가 비교적 어려우면서 다양한 치료법

의 적용이 가능한 4기 유방암의 경우에서도 다학제 진료를 통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 및 보호자로 하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향후 인천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다학제 전문 진료팀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진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방암 센터의 방향 정립을 위해 나름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다학제 진료는 전문의들이 모여서 진료하는 과정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진단부터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사회생활로의 복귀에 이르는 치료의 모든 과정에 대해 진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제공하는 진료의 과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선의 의료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도를 증진하여 최고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의료사고 등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치료의 기회인 것이다.

미국 유수의 암치료 병원인 엠디앤더슨 병원의 유방암 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다. "ONE STOP CENTER FOR BREAST CANCER PATIENTS WHERE DOCTORS AND STAFF COME TO THE PATIENT!" 즉 유방암 환자를 위하여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에게 찾아와서 한 장소에서 진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료가 대한민국에서도 제공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 문의 : 여성암센터 ☎ 032-890-2560~1

인하대병원 유방암 다학제 진료팀(INHABrCT)

유방암 핵심 진료과 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종양전문간호사, 유전상담사.

유방암 유관 진료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물리치료사, 사회사업사, 영양사, 암진료상담사, 연구간호사, 종양간호전공 간호대 교수진



입원 중 영양불량 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으로 재원 일수와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집중 영양치료

“안녕하십니까, NST 전담간호사 문소영입니다.”, “NST요? 그게 뭐죠?”
“OOO 환자 NST 필요합니다.”, “NST는 입산부 검사 아닌가요?”
NST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대화 할 때 들리는 내용이다.
NST란 집중 영양치료(Nutritional Support Therapy)의 약어인데,
입원 중인 영양불량 환자를 점검하고 이들에 대해 적절한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선택진료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된 항목으로 최근 들어 영양불량 환자들에게
집중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그 역할을 인정하고
병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글_문소영 / 간호부 집중 영양치료 전담간호사

집중 영양치료(NST)의 기대효과

문헌에 의하면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영양불량의 빈도가 많게는 입
원 환자의 4분의 1까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NST 활동은 이
러한 영양불량 대상환자를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일 영양요
구량을 계산하고 영양상태를 평가함으로써 부족한 영양을 공급하
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상태 개선을 통해 상처치유를 촉진할 수 있
다. 또한, 치료과정 중의 합병증 및 유병률을 낮추어 재원 일수를 감
소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대효과를
가진다.

집중 영양치료(NST)의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2.2%로 이미 고령사회로 이행되
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는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노인도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 노인이 영양실조 및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영양불량은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들어 입원 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도 가져오며 사망률이 증가하는
중요한 위험인자가 된다.

외과계 중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상환자(Trauma patient)의
경우에도 외상이 발생하면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대사가 항진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지속되면 영양불량으로 이행되어
면역체계에 손상을 주며 감염이 발생하고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미숙아의 경우라면 생존을 위해 영양지원의 필요
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신체발달, 신경
발달을 위해 자궁 내와 같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집중 영양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입원 초기에 영양상태를 평가한 뒤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
는 것은 질병의 치료과정을 촉진시키고 입원기간과 사망률을 낮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의료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NST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양개선 목적의 다학제 치료팀

NST의 의료진은 팀장인 소화기내과 권계숙 교수를 중심으로 내분
비내과 홍성빈 교수, 소아청소년과 전용훈 교수, 약제팀 조재정, 임
유경, 김성희약사, 영양팀 임현숙팀장, 안숙희, 김재희, 홍기연 임상
영양사, 간호부 오제연, 조옥자, 장정희 수간호사, 문소영 전담간호
사가 참여하고 있다.

영양상태 평가 및 개선을 목적으로 분야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의사는 환자관리의 모든 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자의 영양상
태에 대한 평가와 개선, NST 활동의 조율과 관리를 담당한다. 약사
는 TPN의 관리와 처방에 대해 의사와 논의하며 타(他) 의료진에게
영양불량 및 영양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사는 영양상
태 평가 및 영양공급 방법을 제시하며 특히 경장영양공급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간호사는 NST 대상자를 검색하고 회진을 위한 팀
원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데, 특히 간호사는 전담간호사로 운영되
어 TPN 공급을 위한 카테터 삽입과 관리, 환자의 처방이 확실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영양지원 시행에 따른 합병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배우는 즐거움, 함께 하는 즐거움

다양한 직종, 다양한 성격의 의료진이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같은 문제도 어떻게

이리도 보는 관점이 다를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설사”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때 의사는 설사의 원인과 치료
방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약사는 설사의 원인이 투약 중인 약의
부작용에 의한 것인지를 먼저 고민한다. 영양사는 제공되는 관급식
의 종류에 대해서 간호사는 영양을 공급하는 카테터 관리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주요 업무활동과 관련된 이런 생각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개선의견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고 환자에게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이상 보람된 일이 있을 수 없다.

알고 있던 지식도 새로운 형태로 다시 배우게 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환자의 영양 상태를 호전시키고 함께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NST 업무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집중 영양치료(NST) 적극 활용 필요

대부분의 의료진은 질병 치료에 영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피드
백을 받는 일은 드물었고 NST 팀의 활동에 의한 피드백에도 여전히
영양관리 수행률은 낮은 편이다. 지난 몇 년간 NST 활동이 있었지
만 다른 주요한 업무들을 겸하고 있어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이 원
인으로 생각된다. 이제 NST 업무만을 위한 전담간호사 제도가 생긴
것을 계기로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NST 의뢰를 기대한다. 또한, 환
자들의 영양상태를 호전시키고 NST 팀에 대한 의료진의 신뢰와 적
극적인 의뢰를 얻기 위해 꾸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최신지견을
습득하는 것이 앞으로의 NST 팀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의 : 전담간호사 문소영 ☎ 032-890-2572

집중 영양치료(NST)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1. 혈중 알부민 ≤ 3.0 g/dl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상황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일 때
5. 진료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 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선창가 바람,

글·사진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北城洞



붉은 풍등(風登)
흔들다

130여 년 전, 낯선 말투와 차림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산으로 올라와 터를 잡았다. 그곳에서 여지껏 말아보지 못한 낯선 음식 춘장 볶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네들의 영사관, 학교, 사찰이 들어서면서 그곳은 중국촌이 되었다. 그 아래, 응봉산 줄기가 내쳐 달리다 바다와 맞닿은 곳은 고기잡이배 포구와 선창가가 되었다. 독(dock)이 생기기 전에는 바다의 물 끝이 경인선 철도가 끝나는 지점 바로 밑까지 밀려들어 왔다. 현재의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서 있는 곳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제물포(濟物浦)'였다. 독(dock)공사로 1973년 부두시설이 새 바닷가 연안부두로 이전했다. 부두는 옮겨갔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비릿한 선창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바닷물 닿는 곳 어디든 화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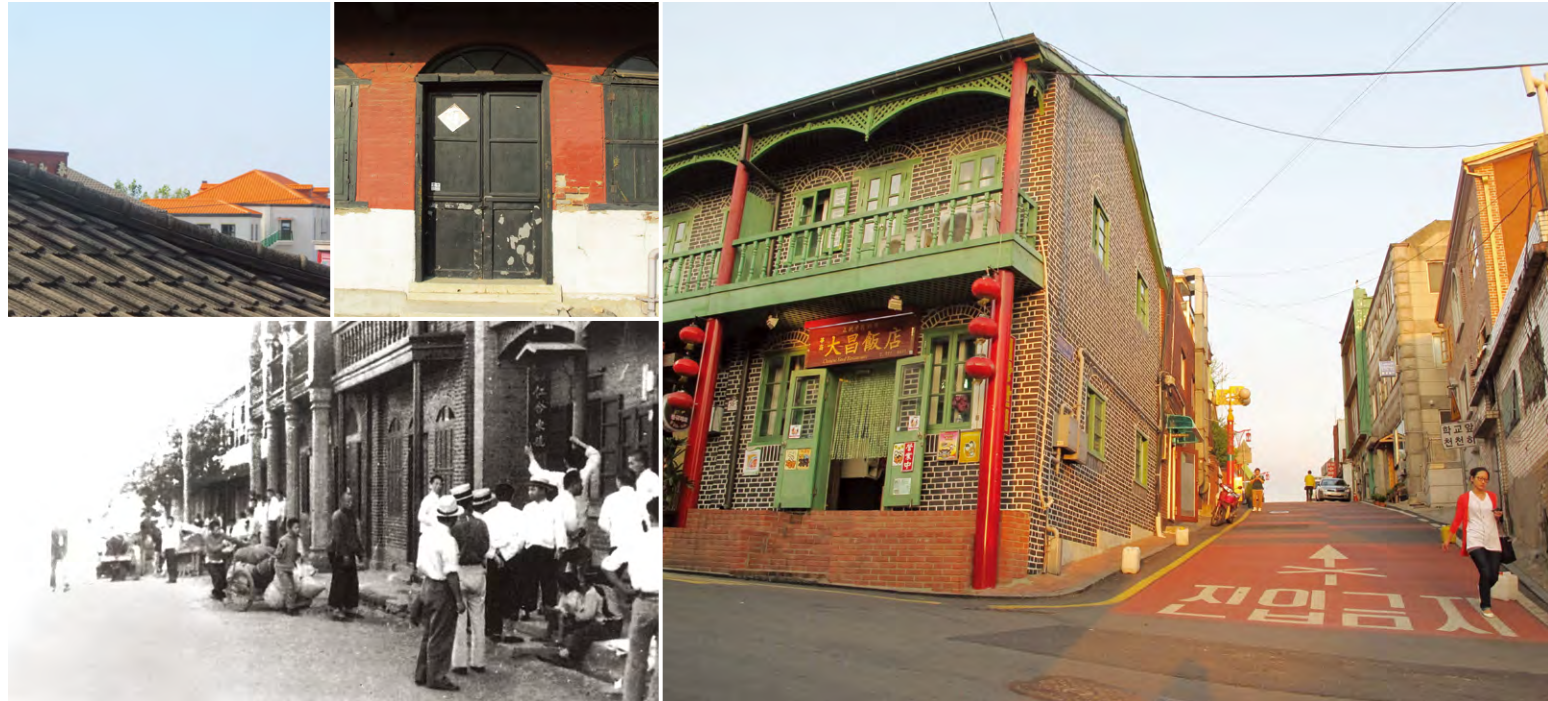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차이나타운' 답게 하는 것은 청요릿집이나 중국 관련 상점이 아니다. 1세기 넘는 긴 시간이 흘렀어도 중국 동네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화교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화교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때는 1882년(고종 19)으로 추정된다. 임오군란 때 한국에 파견된 군대를 따라 40여 명의 상인이 입국하였는데 이들이 한국 화교의 시초가 되었다.

이어 1884년 인천 북성동에 청국조계지(淸國租界地)가 설치되면서 1천여 명의 화교가 거주하게 된다. 화교 학교는 화교 사회의 번성과 침체에 따라 그 학생 수가 증감했다. 인천의 화교들은 북성동 주변에 모여 살다가 점차 주안, 용현동, 부평 등으로 퍼져 나갔다. 그곳에도 작은 화교 사회가 형성되면서 학교가 세워졌다.

예전에는 소학교 교장, 중고등학교 교장이 따로 있을 만큼 학교 규모가 컸다. 지금은 전교생이래야 400여 명에 불과하다. 학생수가 줄다보니 인천중산학교의 자랑인 중국무용단과 밴드부를 꾸려나가기도 힘들게 되었다. 1997년 9월에 창단된 중국 전통무용단은 쌍십절이나 개고기기념일에 화려한 용춤과 사지춤을 선보이며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예전에는 쌍십절을 손꼽아 기다려 일부러 학교로 구경 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그날이 되면 학부모와 구경꾼 그리고 잡상인들로 차이나타운 골목은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무용단과 밴드부는 인천시민의 날 거리행진에 단골손님으로 초청되기도 했다.

바닷물 닿는 곳 어디든 화교(華僑)가 있다. 1884년 4월 청국 조계지가 설정된 이후 1910년 한일병탄 직전까지 중국인들은 서해를 건너 물밀 듯 들어왔다. 초기 그들은 대부분 석공으로 일을 했다. 그들 손에 의해 홍예문은 물론 서울의 중앙청, 명동성당 등이 축조되었다. 어딜가든 중국인들의 집 보따리에는 세 종류 칼이 들어 있다고 한다. 조선으로 건너온 그들은 나중에 대부분 요리사, 이발사, 포목상으로 돈을 벌었다. 간혹 본국과의 교역으로 '동순태' 같은 큰 돈을 번 거상이 출현하기도 했다.



↑ 일제강점기 때의 차이나타운 골목



↑ 새우젓 창고를 개조한 집들이 모여 있는 '새우젓 골목'

짜장면이 처음 만들어진 곳, 차이나타운

춘장과 차(茶)향이 뒤섞여 있지만, 엄연한 한국 땅

흔히 차이나타운 하면 짜장면 동네로 생각한다. 짜장면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짜장면 없는 '중국집'이 있다. 중산학교 바로 정문 앞의 복래춘(福來春)은 4대째 풍신뽕(공갈뽕)과 웰빙(월병)을 굽고 있는 중국 전통 과자점이다. 지금은 곡희옥(曲懷玉·65) 씨와 그 아들 곡사충(曲士忠·33) 씨가 화로 앞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있다. 곡 씨의 할아버지는 1920년대 한국으로 건너와 월병을 팔기 시작했다. 곡 사장에게 복래춘의 웰빙 역사를 들려달라고 하자 말없이 벽을 가리킨다. 상점 벽에는 '월병 가게도'가 걸려 있다. 곡 씨의 가계(家系)를 그린 그 종이에는 월병의 기술을 전수한 가족들의 이름을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해 놨다. 가게 곳곳에는 월병 무늬를 찍어낼 때 사용한 나무틀 등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도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춘장 냄새와 차(茶)향이 뒤섞이고 있지만 차이나타운은 엄연한 한국 땅. 이 거리에서 고집스럽게 중국색(色) 없이 버티는 곳이 있다. 금색으로 혹은 적색으로 화려하게 쓰여진 한자 간판들 사이, 한글로 반듯하게 '현대크리닝'이라고 새겨진 이름이 낯설다. 짜장면집에 포위된 세탁소의 모습이다. 외관은 요즘 구미에 맞춰 리모델링하였는데 내부는 천장이 높은 옛 중국 건물의 형태 그대로다.

'유혹'도 많았을 텐데 50년 동안 업종 변경하지 않고 세탁업을 이어 온 것이 참 대견하다. 짜장면 집들 속에서 이제는 이 집이 이방인처럼 되었지만 긴 세월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삼대가 기술을 쌓아 온 손길이 이 세탁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일 것이다. 이 가게는 차이나타운의 소소한 흥망성쇠를 그 속에서 몸소 지켜 본 산증인이다.

흥정소리와 악다구니 넘치는 새우젓 골목,

한 시대를 살아간 억척스런 왈순아지매들의 모습

차이나타운 아래, 인천역 뒤편은 바닷사람과 바다물건이 모여드는 왈차지결한 선창가였다. 인천의 섬을 오가는 객선부두와 물 위에 뜨는 잔교(棧橋)가 있었고 앞바다에서 걸어 올린 생선을 경매하는 깡시장 공판장이 있었다. 현재 이곳은 도크가 만들어졌고 여객터미널과 어시장 등은 연안부두로 이전했다.

인천항 8부두 정문 건너에 작은 동네가 있다. 큰길에서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곳을 새우젓 골목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보관하던 창고와 가게들이 있었다. 김장철이 되면 사람들은 양동이 하나씩 들고 열차를 타고 오거나 자유공원 응봉산 고개를 지게 지고 넘어왔다. 파는 이와 사는 이의 흥정소리와 악다구니가 골목 밖으로 넘쳐나갔다. 부두가 사라지면서 새우젓도 함께 떠

나버렸다. 빈 창고와 가게에 인근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이 들어와 구들을 놓았다. 쪽방촌이 되었다.

선창가에는 노점상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매일 경인선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큰 함지박에 얼음과 함께 물 좋은 생선을 담아 인천역에서 탑승했다. 출근 시간대의 열차 안은 생선 냄새가 진동했다. 게다가 창문을 열수 없는 겨울철이면 승객들은 대놓고 말은 못해도 참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들이 노랑진역에서 내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열차 안은 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풍경으로 한 시대를 살아간 이 땅의 억척스러운 왈순아지매들의 모습이었다.

고작 한 움큼쯤 되는 붉은 언덕

고향으로 돌아가 묻히려는 간절한 바람

북성동 1가 1번지, 송월동에서 만석동으로 넘어가는 육교로 철길을 건너 만석동 우체국 옆길 동네를 지나가면 옛 외국인 묘지자리가 나온다. 청국 외교관이었던 오례당 같은 인물들이 이곳에 잠들었다. 묘는 1965년 연수구 청학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묘역은 철도부지로 편입되었고 지금은 높은 담장 안으로 둘러쳐져 고작 한 움큼쯤 되는 붉은 언덕만 남았다. 그 안에 어지럽게 줄기를 뻗은 아카시아 몇 그루만이 한에 사무치는 듯 고요 속에 기울어져 있다.

처음에 묘지를 바닷가에 자리 잡았던 것은 언젠가는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묻히려는 간절한 바람이었리라. 옛 묘역에 서니 그 영혼들이 바닷바람 따라 자신들의 고국으로 잘 돌아갔는지 문득 궁금해진다.

그때, 이곳 북성동

러시아영사관

파라다이스 호텔 밑, 인천역 길 건너에 있던 2층짜리 러시아 인천영사관은 1903년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경성 한국 주재 영사관 내에 부영사관을 병설하고 인천, 평양, 진남포 등 을 관할케 하고 있었는데 1902년 10월 31일자로 부 영사관을 갑자기 인천에 이전 설치하였다. 제물포항을 일본만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국의 병참기지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물포 해전 후 영사관이 폐쇄당했으며 일본 육군 운수부에서 사용했고 광복 후 우리나라 해군과 인천해사출장소로 사용하다가 1974년에 철거되었다.

해망दान

현재 선창가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는 곳인 파라다이스(옛 올림포스)호텔이 자리한 곳으로 산이러기 보다는 일종의 언덕이다. 언덕 수준이지만 바다에 접했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기 좋은 곳이었다. 봉화대가 있었고 바다를 향한 대원구(대포)가 있었다. 개화기에는 한때 영국영사관이 설치되었고 이후 인천상륙작전 때 함포로 폐허가 돼 빈터로 남았다.

의선당

'인천부사'에 의하면 이 중국절은 1933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총 3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식 기와를 올린 맞배지붕 건물인 본당이 있고 좌측에는 거주 공간이 있다. 길가에 위치한 건물은 한때 중국무술도장으로도 사용했고, 현재는 중국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 지난 11월에 열린 '루게릭 희망콘서트 5'에서 선 공동대표와 함께

루게릭 투병 **박승일** 전 코치

머물다 잊히더라도 난, 늘 거기 그렇게 있으니...

“내 힘으로 말하고,
내 힘으로 움직이고
내 힘으로 숨 쉬는 동안
나는 내 삶에서 가장 바쁘게 살았다.
유명한 농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지금 난 꽤 유명한 루게릭병 환자다.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수록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난 산다.”

에디터_ 이정희 사진_ 승일희망재단 제공

‘나를 알게 될수록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다’

농구선수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프로농구 사상 최연소 코치로 주목받았던 현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대표. 그는 2002년 6월 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았다. 가족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박승일 전 코치는 혼자서 각 방송국을 다니며 자신의 병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 아픈 것이 방송 되는 것은 용납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승일이는 아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알려야 한다고…….” 카페 활동으로 루게릭병을 많이 알리고 대소변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도 오히려 담담한 일상처럼 알리고 있었던 동생 이 이야기를 누나 박성자 이사는 이젠 말할 수 있다.



← 동생의 '희망 바통'을 받아든 '승일희망재단' 박성자 이사
↓ 사랑하는 가족과 선 대표
\ 박승일 전 코치의 아이스버킷챌린지에서 내레이션을 해준 탤런트 남현주 씨와 함께



동생을 대신하여 활동해야겠다고 박 이사가 결심한 것은 2009년도의 일이다. 환자들 입에서 자신이 루게릭병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박승일'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이다. “박승일을 아느냐고 먼저 묻는다고 해요. TV에서 봐서 알고 있다면서 안타깝다고들 대부분 반응이 오는데 바로 나도 그 병이라고 당당히 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승일이가 전하고 싶었던 '희망'이 바로 이거구나 생각했죠. 아픈 몸으로 애쓴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1년 선 대표와 함께 재단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카페회원들의 모금과 선 대표가 기부한 1억 원은 재단 설립 전이라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을 수 없어 협회에 위탁해 놓은 상태다.

선 대표, '눈으로 희망을 쓰다' 읽고 맺어진 따뜻한 인연

나눔의 대가 선 대표가 박 이사와 함께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박승일' 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한 희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면 또 본인도 그런 '희망 기적' 으로 사는 거라는데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박승일의 책 '눈으로 희망을 쓰다' 를 읽고 찾아온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2014년 아이스버킷챌린지의 주역이었던 선 대표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아이스버킷챌린지에서 국내 가수 '팀'이 처음 지목을 받으면서 '승일희망재단' 선 대표를 지목하고 이어서 조인성, 추신수, 지드래곤으로 이어져 훈훈한 캠페인이 불붙기 시작한 셈이다.

“승일이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슈퍼주니어 최시원에게 지목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음물 대신 눈 스프레이로 하고, 스케치북에 승일이 마음을 적었는데 마침 탤런트 남현주 씨가 방문해 주신 날 이어서 내레이션을 해주셨죠.” 흑여 취지를 모르고 재미로 했어도 기억에 남아 있으면 언제가 알게 될 테니 밝은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 대표와 박 이사 생각이었다. 언론에서 기부 액수를 궁금해했지만 한국 정서에 맞는 바른 캠페인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절 밝히지 않았다. 기부 액수로 좋은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승일희망’, 루게릭병을 알리고 루게릭 병원을 건립하는 것

1년에 2회 열리는 '루게릭 희망콘서트 5'는 모든 것이 재능기부와

협찬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11월 루게릭콘서트를 마쳤다. “이번에 윤도현 씨 경우는 2번의 메시지로 출연 결정을 해주셨고, 앙코르곡까지 불러 주셨죠. 대가 없는 무대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열창해 주시는 한분 한분께 어떻게 이 고마운 마음을 다 전하겠어요? 그럼에도 제바람은 이 콘서트가 가수분들이 서고 싶어 하는 따뜻한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4시간 간호의 손길이 필요하고, 튜브를 통해 음식 섭취를 해야 하고 의사소통은 점점 힘들어지고 모든 기능 저하된다. 호흡곤란이 오면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힘든 시간 속에 루게릭병을 앓는 가정이 붕괴는 되는 모습은 흔한 일이다. 특별히 치료해줄 약이 없어서 병원에 있을 수도 없기에 승일희망재단의 궁극적인 사업목표는 루게릭 환우를 위한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과 지원이다.



‘루게릭 환자 박승일’을 대신 사는 위대한 사람들

70대 후반이신 박 대표 부모님은 알람을 해 놓고 수시로 아들 몸을 뒤척여주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며 운동을 시작으로 하루를 연다. 삼촌을 환자로 생각하지 않는 조카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얘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최근 동생을 만나고 온 누나 박 이사는 곧 있을 방송 리퀘스트 이야기며 4월 콘서트 계획을 말하고 출연자 섭의를 누구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라고 했었다. 박 이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갖는 좋은 긴장과 희망은 지금까지 동생이 버틴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의 삶을 대신하기란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리라. 그러나 박 이사에겐 멋진 콘서트를 보고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남편과 멋진 엄마라며 응원하는 두 딸이 또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먹먹한 가슴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었다. 따뜻한 마음과 긍정으로 희망을 전하고자 루게릭 환자인 자신을 아낌없이 드러낸 박승일 대표, 또 그것을 공감하며 움직여주는 선 대표와 누나 박 이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축복을 주심이 분명하다.

차를 끓이고 기다리며.....

건강과 심리적 안정까지! 몸에 좋은 따뜻한 차 한 잔

에디터_ 임현숙

茶

요즘은 건강에 좋은 음료나 차를 수시로 마시며 지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무래도 차는 추운 겨울이 더 제격이 아닌가 싶다. 추위에 움츠렸던 몸, 따뜻한 차를 끓이고 기다리며 식혀 마시는 과정을 통해 몸도 건강해지고 심리적 안정감도 찾을 수 있어 좋다. 올겨울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즐겨보자.



질환의 증상 완화에 특히 도움이 돼 겨울철에 자주 마시면 좋다. 유지는 찬 음식이라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몸이 찬 경우 조절이 필요하다.

오미자, 레몬 티 얇게 자른 레몬과 오미자, 설탕을 넣고 고루 버무린 후 유리병에 넣고 실온에서 하루 보관 후 냉장고에 넣어 열흘 정도 숙성 후에 마시면 좋다. 오미자는 기침이나 감기 예방에 효과가 좋고 호흡기를 진정시키며 몸에 부족하기 쉬운 진액을 보충한다. 겨울철 추위에 체력이 떨어져 입맛이 없고 피곤할 때 마시면 좋고 레몬과 오미자 특유의 신맛이 어우러져 상큼한 차를 맛볼 수 있다. 오미자는 센 불에서 끓이면 떼은맛이 나므로 약한 불에서 문근하게 끓인다.

애플 시나몬 티 씻은 사과를 4등분으로 잘라 씨 부분을 제거하고 나박하게 썬다. 냄비에 썬 사과와 황설탕, 시나몬 파우더를 넣고 30분간 재운 후 물기가 생기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사과가 투명해질 때까지 졸여 뜨거운 물에 타 마신다. 사과는 비타민 C와 유기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좋으며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는데 좋다. 계피는 두꺼운 것이 좋고 오랫동안 끓여야 향과 맛이 좋다. 사과의 달큰함과 씨한 계피향이 어울려 겨울철에 부드럽게 마실 수 있다.

그밖에도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대추차나 피로와 피부 트러블 해소에도 좋고 폐를 촉촉이 적셔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구기자차도 좋다.

뿌리차



우영차 우영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어슷썰기 한다. 이것을 식초 물에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제거한 후 채반에 말린 후 기름기 없는 프라이팬에 중약불로 타지 않고 갈색이 되도록 여러 번 볶는다. 이것을 주전자에 넣고 끓여 마시거나, 잔에 우영을 넣고 뜨거운 물로 우려먹는다. 의외로 쉽게 우려나는 차다. 우영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고 겨울 동안 쌓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주고 고지혈증에 효과적이다. 최근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목을 끌었다.

무말랭이차 무를 햇볕에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 프라이팬에서 약한 불에 30분 정도 볶는다. 무를 햇빛에 말리면 칼슘이 15배 증가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무말랭이의 리그닌 성분이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를 꾸준히 먹으면 비염 등 기관지에 도움이 되고 감기 등 면역에 도움이 된다.

총백차 파 뿌리를 말린 것을 '총백'이라 부르며 한방에서는 약재로 사용한다. 매운맛을 지닌 파 뿌리는 발한 작용을 도와줘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감기 예방차로 잘 알려진 귤피차에 파 뿌리를 더해 우려내면 맛과 효능이 더 좋아진다.

도라지차 도라지는 거담 작용이 있어 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초기 감기보다는 기침이 심할 때 마시면 도움이 된다. 도라지를 잘게 썰어 꿀이나 조청을 넣고 졸여서 물에 타 마셔도 좋고 말려서 뜨거운 물에 우려마셔도 좋다.

과일, 열매차



유자차 감기에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은 차로 꼽히는 유자차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하고 향염,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호흡기

한방차



눈에 좋은 건강 차 구기자과 백국화 각 10g을 물 500cc에 넣고 10분 정도 약한 불로 달여 먹으면 안구 건조증 등 겨울철 눈의 피로감과 안구 충혈에 도움이 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한다.

방학 맞은 아이의 키크키 차 두충과, 검은 콩 각 10g에 물 500cc를 넣고 20분간 약한 불에서 달인다. 뼈와 근육 발달 또 키 크는데 도움이 되며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

인하대병원, 국내 2주기 인증을 통해

환자안전 시스템 재점검을 하다

환자안전은 세계적인 이슈사항이며, 인하대병원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체계적인 환자 안전문화 정착을 실천하는 인하대병원 교직원들의 의지를 'Change the INHA' 시리즈 일곱 번째로 **환자안전 시스템 재점검**을 소개합니다.

(글_ 문미혜 / CSQI팀장)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태동은 2004년 의료기관 평가제도(2004~2010년)에 기반하여 2010년 의료기관 1주기 인증을, 2014년 제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하게 되었다.

2주기 인증은 항목이 537개로 늘어났고 인증 통과를 위한 커트라인도 높아졌다. 또한 2주기 인증은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수 요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원 안전의 기본이 되는 필수조사 항목(제1장, 2장)에서 “무” 또는 “하”가 1개 이상 있으면 불인증에 해당하므로 이번 인증 준비는 어느 때보다 깐깐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럼 인증을 받으면 병원이 안전해지는가?

우리 병원이 국내의 인증을 거치면서 여러 분야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안전한 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JCI를 포함한 인증이 마치 병원의 안전을 보증하는 시스템인 것처럼 생각 할 수 있음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왜

냐하면, 일류병원의 환자 안전은 Ongoing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한 인하대병원 구축을 위한 변화의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손 씻기 캠페인

인증, 환자안전을 위해 병원이 해야 할 일

안전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제공자들을 양성하는 것보다 노출된, 혹은 잠재적 오류를 예방하거나 발견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3번의 인증을 통해 아래와 같은 교훈을 얻었고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하게 되었다.

첫째, '안전(Safety) 과 위험(Risk)'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담당자는 일정한 자격(임상적 경험과 Data 관리능력 등)과 훈련을 갖추도록 하였다.

병원 내 안전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CSQI팀 이외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회의체가 필요하다. 우리 병원의 경우 QPS 위원회 산하 Q위원회, 환자안전관리위원회, 병원안전관리 위원회, 병원 지표 관리 위원회, 의무기록 다학제 검토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이 주기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개선 결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둘째, '안전(Safety) 과 위험(Risk)'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교육과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원의 경우 매년 Q 아카데미를 통해 질향상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관리 방법론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리더십과 권한체계의 중요성



신생아실 화재대피훈련

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적인 결함을 일선에서 포착하고 “오류 발생”이라는 실패 사례에서 개선 과제를 찾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임원진 Safety Rounding

셋째, 진정한 환자 중심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위한 다학제적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원의 대장암, 유방암 환자의 다학제 팀 진료는 의료진 간 의학적 정보교류를 통해 최적의 진료방향을

찾아내고 진료결과를 좋게 할 뿐 아니라 이용도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넷째, 환자의 임상적 위험을 주치의가 빨리 교정하도록 지원하는 보고체계 Critical Value Report(검사 이상치 보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유선 보고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오류 방지를 위해 '환자확인', 'Read back', 'write down', 'confirm'의 과정을 지침화 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진실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적시에 작성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본원의 경우 주요 의무기록이 적시에 작성되도록 항목별 작성 허용시간을 두어 적시성과 완결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시스템에 환자 안전과 질 관리가 포함되어 리더십의 관심이 '환자 안전과 질 향상'에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인하대병원은 인증을 통해 이를 검증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인증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리 병원은 두 번의 JCI 국제 인증과 국내 인증시스템을 통해 JCI 1,218개(JCI ME), 국내인증 537개(국내 2주기 기준의 ME)를 통해 환자안전과 질 향상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는 총체적 평가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병원 안전 시스템 성과를 3개 분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Culture) 성과

- 병원 전 분야에 Risk Assessment(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환자 안전 문화 인식도가 2010년 38.5%에서 2012년 84.5%로 증가하였다.



병리과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대응훈련

- 환자 및 개인 정보의 보호 지침 강화로 허가되지 않은 자의 의무기록 접근이 원천 차단되며
- 손 씻기 활동 등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 환자의 진료 참여와 Privacy 존중 문화가 형성되었다.
- 또한 주요 안전분야 업무는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연간 안전활동 우선순위를 설정, 시행, 평가되는 선 순환 체계가 정착되었다.



병원안전관리위원 공사현장 Safety Rounding

둘째, 구조적(Structure) 성과

- 안전한 Sedation(진정) 구현을 위한 Sedation Room이 별도 신설되어 소아에게 진정이 필요한 경우 적격한 자(마취 전문의)에 의해 안전한 진정 전, 중, 후 관리를 받게 되어 환자 안전이 확보 되었다.
- 공간 기능에 따른 음압 / 양압 유지 모니터링 체계가 완비되어 감염부분의 안전성이 확보 되었다.
- 또한, 전 병원 내 응급 Cart의 약물 배치를 통일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고주의 약물의 사용 오류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이후 많은 병원이 우리와 같은 형태로 업무 개선을 하였다.

셋째, 과정(Process) 성과

- 137개의 병원 지침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고
- 중환자실, 특수치료실의 입·퇴실 기준이 확보되었다.
- 환자 확인 및 정확한 수술부위 표기와 수술 시 절개 직전 Time Out 시행 등 안전 장치가 정착되었다
- 또한 경영진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여하는 시스템이 구축 유지되고 있다.

넷째, 결과(Outcome) 성과로

- 환자안전 사고와 근접오류 (Near Miss) 보고 중요성에 대해 전 직원의 인식 향상으로 위해 사고(Adverse event)가 감소하였다.
- 수술 전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Time Out 절차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Error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 병원도착 48시간 이내 사망 건은 Peer Group Review(동료그룹 심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분석하여 진료과정을 재검토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Mortality Conference) 실제 사망률도 감소하였다.
- 의무기록 작성 기준을 수립,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충실한 의무기록 제공이 가능하다. 진정 환자관리를 통해 소아 진정 관련 오류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훈련 중 제독과정

환자가 안전한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 인하대병원엔 또 무엇을 하려는가?

이제 병원의 안전은 규모의 경쟁이 아닌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관련 지표로 평가되므로 병원의 안전은 경영적 측면으로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의료 오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료제공자 개인의 문제(bad apple)라기보다는 안전하지 못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이 알려지고, 유능한 의료제공자라도 안전이 우선시 되지 않는 혼돈스런 시스템에서 일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하여 의료과오가 없는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2주기 인증 조사를 통해

“The performance improvement cycle is an ongoing process” 우리병원의 환자 및 직원 안전 시스템은 계속 작동되고 개발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4년 간 의료기관 우수인증 병원으로 병원계의 자랑스러워 될 것이다.

2주기 인증준비로 힘들지만 자랑스러운 인하대병원을 위한 직원의 노력은 계속 진행중이다.



폐렴구균 감염에 잘 걸리는 감염 고위험군 소아와 성인, 65세 이상의 노인은 반드시 접종

Q 폐렴구균 백신이란 무엇인가요?
A 폐렴구균 백신은 여러 가지 폐렴구균 감염증 중에서 주로 수막염, 균혈증, 폐렴 등의 심한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폐렴구균 백신에는 다당 백신과 단백결합 백신 등 2가지가 있으며 연령에 따라 접종기준이 다릅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특히 폐렴구균 감염에 잘 걸리는 고위험군 소아와 성인, 65세 이상의 노인은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합니다. 중이염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Q 폐렴구균 백신은 재접종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첫 회 접종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無脾症)
 ● 면역기능이 저하된 질환(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백혈병, 림프종, 전신적인 악성 종양, 면역억제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전신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 고형 장기 이식 및 다발성 골수종)을 가진 사람
 ● 65세 이전에 다당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6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Q 폐렴구균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A 네,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Q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접종부위의 통증, 부종, 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신적으로 발열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을 앓고 있을 때는 백신 접종 전 의사와 상의합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폐렴구균 백신]

백신	제품명	제조(수입)사
23가 다당 백신	뉴모-23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주)
	프로디악스-23	한국엠에스디(주)
13가 단백결합 백신	프리베나 13	한국화이자 제약(주)
10가 단백결합 백신	신플로릭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 Ref)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2013), 질병관리본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희망은 있었다”



2013년 1월 23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잊히지 않는 아니 잊을 수 없는 악몽의 날입니다. 건강하고 축구 잘하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아들이 끔찍하고 무서운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던 날입니다. TV에서 보았지만, 내일이 아니었기에 무심코 흘러 지나고 눈여겨보지 않고 귀담아듣지 않았던 “백혈병” 무관심했던 일들이 내앞에서 일어날 줄이야...

내가 주위를 눈여겨보고 귀담아들었다면 하늘이 나를 벌 주진 않았겠죠!
무조건 이유 없이 아들에게 미안하고 부모 죄입니다. 골수 검사와 함께 못 볼 지경이었죠!
길었던 머리는 스님 머리가 되어 가슴이 미어지고 항암 부작용으로 두통, 탈모, 메스꺼움, 구토 등등... 아무것도 못 먹고 냄새도 못 맡고 구토할 때는 엄마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아파하고 바라보는 것 외엔... 대신해줄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모 잘 못 만난 죄로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싶었습니다.

처음 백혈병 진단을 전해주시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님도 원망했지요. 내게 왜 그런 끔찍한 말을 해주셔서 내 아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원망할 때가 없어서 교수님께 원망한 어미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먹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항암제와 병마와 싸우는 아들은 여위어 뼈만 앙상하게 남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때때로 구르면서 엄마나 좀 살려달라며 내 옷을 잡고 울 때는 같이 피눈물을 흘리곤 했었지요.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왜래는 될까? 학교는 갈 수 있을까? 주인을 기다리는 교복은 입을 수 있을까? 예전처럼 축구화 신고 축구공을 찰 수 있을까? 좋아하던 달리기는 달릴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수없이 밀려오고 시간이 조금씩 지날 때쯤 아들과 약속했지요. 꼭 나아서 다시 날자고!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희망을 갖자고!
지금의 고통은 너 자신 미래의 벽찬 희망이, 더 큰 미래를 꿈꾸기 위해 잠시 쉬면서 생각 중이라고...

아들도 저도 다짐합니다. 꼭 나아서 다시 일어서자고요.
희망도 내일도 안 보이던 날들이 조금씩 짝이 움튼다.
김순기 교수님의 자상함. 서8병동 소아과 병동의 모든 선생님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웠던 순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가 한밤중에 아파하면 새벽시간에도 와서 살펴보고 안쓰러워하시며 진정시켜주시고 몇 번을 콜해도 항상 친절하게 살펴주시고 싫은 내색 없이 항상 웃으며 달래와 안심시켜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인하대병원 왔을 때는 소아암 병동이 따로 없는 이 병원에서 치료는 할 수 있을까? 서울로 가야되나 하고 이곳저곳 알아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모든 부모가 내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병실의 환아 엄마들의 말들이... 본인들도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교수님을 믿으라고, 인하대를 믿으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말씀하신 분이 김순기 교수님이셨으니 치료도, 낫는 것도 교수님 손에 달렸지요! 제 아들을 교수님 손에 인하대병원에 맡겼습니다. 아마도 주위의 모든 따뜻함이 없었다면 절망이었겠지요. 이렇듯 교수님을 믿고 여러 선생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1년여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퇴원하여 지금은 유지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끔찍했던 시간, 울고 웃던 시간,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시간,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간. 그 처참했던 절망과 공포의 순간이 지나니 지금은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이렇듯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암치료에 이기지 못하고 열이면 밤새 조마조마 애타우며 혹시 잘못되었나? 방정맞은 생각도 하고 “엄마나 죽어?” 하며 울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뒹굴던 아들! 참으로 대견하고 장하지요?
이제 고1이 된 아들. 그 힘든 항암치료를 무사히 이겨내고 조금씩 달리기 준비를 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배려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힘들지만 아들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이젠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힘든 시간도 이겨냈는데 다가오는 시간들이야 영채! 영채! 하면서 아재! 아재! 환팅하겠죠! 잠시 잊었던 꿈을 향해 날개를 펴고 높이 높이 날겠죠! 저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주위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 등등...

이기적으로 살아온 저에게 많은 눈을 뜨게 하였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 반성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김순기 교수님께 또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모든 걸 잃을 뻔 했던 순간을 교수님의 자상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하여금 용기를 주셨고 믿음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8병동 소아과 주치의 선생님들과 수간호사 선생님 이하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달래와 보듬어주시고 웃으며 “괜찮아 넌 할 수 있어”라며 환팅을 응원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나아서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큰 보답이겠죠!
고맙고 감사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앞으로 남은 동안 잘 치료받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꿈과 희망을 향해 날개짓 할 겁니다.
교복 입고 가방 메고 학교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에 어머니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해서 지난 1년여의 항암치료 시에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주먹을 움켜쥐며 자기 가슴을 내리치는 아들을 보며 지난 시간을 어찌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14년 8월
어느 따스한 푸른 빛의 여름날
희망의 날개를 펴고 용기와 꿈을
하늘을 향해 높이 도전하는 아들을 보면서.



차가움 뒤의 따스함 알마티를 기억하며...

글_ 김시현 과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참 신기하게도 밤 비행기는 7시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밤 비행기 속에서 시간은 그냥 멈추어 있다. 가도 가도 짙컴한 어둠 속... 카자흐스탄 의료봉사를 준비할 때의 내 마음과 똑같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낯선 땅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알마티... 인천에서 7시간을 쉬지않고 꼬박 날아가야 하고, 한국보다 좀 더 춥고, 중앙아시아에 있으며 러시아, 우즈벡, 키르기스스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고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기본적인 상식 외에 이 나라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다. 어디를 가든 공항에서 처음 그 나라의 바람 냄새를 맡는다. 알마티의 바람 냄새는 그냥 차다. 기온이 낮아 차다기보다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움이 확 몰려온다. 돌아오는 날까지 이 차가움은 남아있다.

거친 러시아 말, 무뚝뚝한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늘 스모그에 묻혀있는 뿌연 하늘... 이 땅에서의 의료봉사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카작에서의 인하대병원 첫 번째 의료봉사는 성공적이었다.

영광스럽게도 빨간색 번호판의 대사관 차를 타고 알마티 시내를 무한 질주하기도 하고, 침블락 산의 예쁜 카페에서 설산을 마주하고 향기로운 차 한잔을 마시는 행운도 만났다.

2014. 10. 28 ~ 10. 31 알마티에서의 기억을 뒤로하고 또다시 제자리걸음만 하는 밤 비행기에 오르며 내년을 약속한다. 시간이 멈춘 밤 비행기 안에서 11월을 만난다. 굿바이~ 알마티

기억에 남는 할머니의 초콜릿 가슴 뿌듯한 의료봉사

글_ 신은호 / 정형외과

카자흐 사람들의 땅이란 뜻의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불리우지만 출발 전에 검색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3박 4일간 의료봉사를 다녀온 정형외과 1년 차 신은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안승익 부원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의료진 3명, 간호부 3명, 약제부 2명, 국제 협력팀 2명, 공공의료 지원단 2명까지 총 12명이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올해 처음 의료봉사를 가는 곳이라고 하여 설렘 반 두려움 반을 가지고 6시간의 비행을 거쳐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밖을 나서자 차가운 밤공기와 쿨리한 매연이 코를 찔러와 내가 드디어 도착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알마티 고려인 회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진료하였습니다. 준비해간 약품을 정리한 후 진료를 시작하였고, 진료는 총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기도 했고, 처음 봉사장소로 알아본 곳이라 잘 맞지 않아 급하게 장소를 섭외하게 되어 환자가 얼마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많은 분이 고려인 회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 환자분이 대부분의 고려인 분이어서 더 뜻깊은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틀째에는 입소문을 듣고 근처의 카자흐스탄 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전부터 통역 봉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공 상 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을 진료했지만 환자가 많을 때는 내과적 질환 환자들을 보기도 하였고 과 특성 상 잘 사용하지 않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다른 의료봉사와 색달랐던 점은 봉사를 위해 방문했던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이기도 하고 경제의 중심지이다 보니 환자들도 꽤 의료의 혜택을 많이 보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웠던 환자들도 있었는데, 인공술관절치환술을 한 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고름이 나오는 환자가 있었는데 상처가 잘 안 닫히니 봉합만 2차례 했던 환자도 있었고, 머리가 아픈 환자에게 요추 MRI를 권유하여 촬영하고 그 필름을 들고온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담당했던 한국어과 담당 교수님도 오셨는데 어렸을 때 팔꿈치 수술 후 팔꿈치 운동 범위가 감소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억에 남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자신이 이동휘 장군의 증손녀 딸



이라고 소개하시면서 한국 가서 꼭 찾아보라고,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연신 감사인사를 해주신 할머니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고맙다며 카자흐스탄 초콜릿을 주고 가셨던 환자분도 기억에 남습니다(이 초콜릿은 롯데제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고려인 회관에서 진료하다 보니 지역 방송국, 신문사의 취재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3~4군데에서 취재를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매체에 소개되었을 우리 병원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감사했고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하대병원이 앞으로도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해서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제가 그 안에서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안승익 부원장님 이하 2014 카자흐스탄 봉사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사랑의 작은 실천, 삶의 희망주는 생명의 빛으로



어느덧 추운 날씨와 함께 매서운 바람이 가슴을 파고든다. 뉴스에는 아직도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지만,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들려오는 훈훈한 사연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살만한 게 아닌가. 인하대병원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진료비를 지원하며 희망을 선물했고, 대외협력팀 원공주 사회복지사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결실을 맺으며, 진정한 사랑과 봉사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글_홍보팀

20년 전 기증한 조혈모세포, 주는 사람이 더 기쁜 마법의 선물

“청혼을 받을 때의 떨림? 너무 설레고 기뻐어요.”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원공주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다. 그녀는 어느 날 전화를 받고, 한동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20년 전 우연한 기회에 기증한 조혈모세포의 조직 일치 수혜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원공주 선생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증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정보가 없던 배우자는 걱정이 커 처음엔 반대했지만, 원 선생님의 각오와 기증의 의미를 알게 된 후 오히려 본인도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혈모세포 기증, 무섭거나 위험하지 않아요.”

골수기증의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한다. 우선 전신마취하에 진행되는 ‘조혈모세포기능’은 엉덩이뼈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방법이고, 원 선생님의 방법은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헌혈실에서 헌혈을 통해 필요한 조혈모세포만 채취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2박3일 입원이 필요하나, 조금 오래 걸리는 헌혈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위험하거나 무섭지 않다고 한다. 특히 원공주 선생님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남은 인생을 더욱 보람있게 보내야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한다.



원공주 선생님과 배우자가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며 미소 짓고 있다.



박지철 군과 어머니, 그리고 원공주 선생님이 함께 웃으며 기뻐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아들의 의지로 오늘도 행복합니다

“너무 어린아이에게 찾아온 병, 짧은 인생 행복한 기억만 남겨주고 싶었어요” 척추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박지철(17) 군. 척추성근위축증은 척추신경 중 운동신경이 선택적으로 손상되어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난치병이다. 돌이 지나도록 별 움직임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찾은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매일 지철이의 곁에서 간병을 해야 했다.

“합병증의 위험이 커 길어야 3~4년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들었을 땐, 슬퍼하기 보다는 짧은 인생 행복한 기억만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죠.” 어머니는 당시의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젠 가족과도 같은 ‘우리’ 인하대병원, 많은 도움과 지원 주셔서 감사드려요” 4년 전,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로 사회복지상담실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시기에 다행히도 사회복지상담실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어 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이후에 주위에 크고 작은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난 6일에는 포스코에너지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어머니는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배려와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철이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밝은 모습으로 더 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환자 – 의료진’의 결연관계로 소통하며 최선의 치료를 추구하는 병원



강종권 원장

새롭고 올바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한다는 각오로 부평구 산곡동에 ‘새울재활요양병원’이 문을 연 것은 지난해 9월의 일이다.

재활을 위해 장기 입원 하는 환자들의 큰바람은 가족 같은 의료진이 있는 내 집 같은 편한 병원이다. 환자들을 위한 직원의 역량발휘에 아낌없이 지원하여 환자와 함께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울재활요양병원 강종권 병원장, 그에게 가족 같은 병원을 만드는 것은 1차 목표이기도 하다.

새롭고 올바르게 가족처럼 치료하는 새울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내과, 한방과 그리고 뇌졸중, 척수손상, 중추·말초신경계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재활치료 표준병원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무엇보다 새울재활요양병원의 특색은 400평 규모의 재활치료센터에서 펼쳐지는 1:1 재활치료이다. 기본적인 운동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 외에도 잘 꾸며진 헬스장을 연상시키는 기구 운동실, 흔들리는 줄을 이용하여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슬링치료, 일상으로 복귀하였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상생활 동작실 등 차별화된 최신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열정을 가진 치료사들은 오로지 환자들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전문 클리닉 운영을 통한 특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
새울재활요양병원은 재활치료 외 알레르기 클리닉, 만성질환 클리닉, 호흡재활 클리닉, 한방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알레르기 클리닉에서는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의 질환에 대한 전문의의 검사와 단계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성질환 클리닉을 통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의 예방과 꾸준한 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호흡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기침 유도 기계, 비침습적 호흡기 등의 특수 장비를 갖추고 전신근력운동, 호흡근 근력운동, 호흡법훈련 등을 시행하는 호흡재활 클리닉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방비만클리닉에서는 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자와 직원 간 결연프로그램으로 유대관계를 쌓고 원활한 소통으로 가족 같은 병원 만들기를 전 직원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환자에게 필요한 여가지원, 건강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즐거운 병원 생활과 더불어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새울재활요양 병원은 삶의 희망으로 가득하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46(산곡동 251-3) ☎ 032-507-3355



인하대병원,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성료

‘글로벌 환자안전시스템’ 구축·체계적 의료시스템으로 주기 인증 조사 성실히 수검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제2주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수검은 지난 2011년 1월, 인하대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2회차를 맞

이한 평가로, 최초 인증할 당시 보다 한층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 전반을 평가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이에 “전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 인증수검에 임했다”며 “다양한 수검과정의 경험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착된 인하대병원의 환자안전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또 김우철 적정진료지원실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이번 평가는 ‘의료기관인증’이 시작된 후 2주기를 맞이하는 평가로 한층 강화된 평가기준을 준비해야만 했다”며 “평가를 받는 입장을 떠나 2주기 인증기준에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강화한 국가의 취지에 공감하며, 전 의료진과 임직원이 합심해 준비했기에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선정

뇌과학 원천기술개발과제 우수 성공



인하대병원은 10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하는 ‘뇌과학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치매 치료의 핵심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뇌과학 원천기술개발 사업에는 인하대병원 신경과 최성혜 교수(사진) 연구팀의 ‘치매 예측 뇌지도 비교 검증용 코호트 연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와 국가적 치매 예방과 관리사업의 중심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최성혜 교수는 “이번 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매 조기진단 및 예측기술개발에 기여하여 치매 관련 국가 사회적 비용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첨단 치매 조기진단 및 예측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고부가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영모 원장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인구

의 증가로 인해, 치매는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며 “이러한 시기에 인하대병원이 치매 치료의 핵심적 연구사업을 수주하여,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저산소 표적질환 연구센터’ 개소에 이어,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진료와 연구 등 의학연구를 더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디오피아 소재 명성의과대학,

지구 반대편에서 넘어온 선물 받다

인하대병원, 에티오피아 의료발전 지원

인하대병원은 11월 12일 지난 1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소재 명성의과대학에 기증한 의학과서 500여 권이 10개월간의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도착, 현지 도서관에 전달됐다.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해 에티오피아 의료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교육목적을



두고 2011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소재 명성기독교병원(MCM)에서 설립한 대학으로 에티오피아 국립대학인 라이온 의과대학과 함께 가장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인하대병원과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은 지난 2012년 11월에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1월에는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500여 권의 책을 모아 기증했다.

기증한 도서의 무게 때문에 항공 운송이 아닌 바닷길을 통해 보낼 수밖에 없어 10개월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책을 받게 된 에티오피아 학생들은 인하대병원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인하대병원, 포스코에너지와

지역사회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난치병 환아들에게 사랑의 손길 건네다



2014년 11월 6일(목), 인하대병원은 난치병을 앓고있는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포스코에너지와 함께 ‘난치병 환자 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인천지역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중 척수성 근위축증(근육이 서서히 굳어 끝내 폐와 심장까지 마비되는 병)과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뇌 손상으로 보행 및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질환)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3월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을 발족하여 의료지원, 사회봉사, 해외 의료지원, 민관협력, 공공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민관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인하대병원, 카자흐스탄 의료봉사료

2014년 글로벌 나눔의료 마무리

몽골, 베트남에 이어 카자흐스탄에서 올해 마지막 여정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이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는 지난 6월 우즈베크를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등 봉사에 이어 올해 아시아 글로벌 나눔의료 활동의 마지막 여정이다.

지원단은 안승익 진료부원장(외과 교수)을 단장



으로 혈액종양내과, 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알타이 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무료진료와 건강상담을 하였으며, 현지 의료봉사와 더불어 아스타나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CIS국가 해외환자 유치에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 외에도 병원은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초청해 무료 수술을 실시하는 등 진정성 있는 해외의료봉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의 글로벌 나눔의료활동은 ‘나눔, 문화, 실천’의 경영철학을 전 세계로 펼쳐 나아가려는 사명과 의지의 실천”이라며 “인하대병원이 가진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민관기업, 현지단체, 해외원조전문기관과 체계적인 협력 아래 보건환경이 열악한 지구촌 곳곳을 찾아가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공적 해외의료봉사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말벗 도우미,

지역 정신건강증진 공로 인천광역시 표창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는 지난 23일 인천 지역 홀몸 노인들을 위한 ‘말벗 도우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인하대병원 55명의 간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

인 3조로 홀몸 노인을 찾아가 돌보는 자원봉사를 펼쳐 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중구청과 ‘말벗도 우미사업 협약’을 체결해 홀로 생활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겪는 노인들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매월 지속적인 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한 말벗 되기·건강 관리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줌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항상 대외기관과 협력해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격려와 감사의 의미로 삼아 진심으로 소통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3월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을 발족했으며 이달 18일에는 동인천 북광장에서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소외계층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봉사 모임(참마음소리)

수미정사 의료봉사



2014년 10월 18일 인하대병원 봉사 모임(참마음소리)에서는 인천 남구에 위치한 수미정사에서 의료혜택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진료 및 혈당검사, 혈압 측정을 통하여 치료, 투약, 교육 등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였다.

수미정사에서는 해마다 남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위안잔치 및 의료봉사를 하는데 인하대병원 봉사 모임에서는 3년째 의료봉사로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4명의 교수와 전공의 1명, 8명의 수간호사와 행정직원, 직원가족 등 총 19명의 봉사자들이 2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를 하였으며 공로상을 받았다.

사진으로 보는 인하대병원 소식



2014.10.13
사랑 공모전 시상식



2014.10.14
유방암 건강공개강좌



2014.10.18
민들레진료소 희망건강검진



2014.10.21
골다공증 공개강좌



2014.10.21
의무기록 작성 우수 표창



2014.10.22 영상의학과 전문성 교수,
국제 인터벤션 학회 초청 강연 성료



2014.10.27
10월 친절직원·친절부서 표창



2014.10.29
뇌졸중의 날 행사



2014.11.04
여성암센터 희망 메이크업 행사



2014.11.11
암 환자 따뜻한 겨울나기



2014.11.13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의 국제대회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건강교실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안내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12월 11일(목), 2015년 1월 14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암 환자 음악 요법	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진료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 세미나실	

전시회 및 공연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4. 12. 03 12:00~13:00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한국 토요타 자동차 <유지컬 배우 손준호>	1층 로비
	2014. 12. 05 ~ 12. 25	길을 걷다. 소소함의 미학	박진이	2층 갤러리
	2014. 12. 26 ~ 2015. 01. 15	2014 내그비	2014 대한항공 내가 그린 비행기 그림 입상작	

●문의 : 홍보팀 ☎ 032-890-2603 ●일정은 참여 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후원현황	일자	후원자	후원금	비고
	2014년 08월	이대송	5,000,000	
	2014년 08월	차상익	10,000,000	오광화원 대표
	2014년 09월	이선영	1,000,000	새희망병원 원장
	2014년 10월	조정일	1,000,000	연세베스트이비인후과 원장
	2014년 10월	이천규	5,000,000	(주)부일교통 대표
	2014년 10월	최용문	2,000,000	(주)명성 대표
	2014년 10월	피부과 교수 및 전공의 일동	14,000,000	

Info desk

연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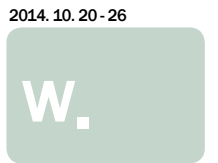
2014. 10. 14
출연: 김영태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티브로드 인천방송
건강과 생활
내용: 척추관 협착증



2014. 10. 16
출연: 권성렬 교수/
류마티스내과
프로그램: CBS 사랑의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눔시다
내용: 베체트병



2014. 10. 20
출연: 조규정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법입니다
내용: 척추관 협착증



2014. 10. 20-26
출연: 권계숙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SBS 라디오
1분 건강칼럼
내용: 7가지 소화기질환관련
의학적상식



2014. 10. 21
출연: 김영태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티브로드 인천방송
건강과 생활
내용: 무릎 퇴행성 관절염



2014. 10. 22
출연: 윤정호 교수/치과
프로그램: SBS 모닝와이드
내용: 정선 질환을 유발하는
잇몸질환군



2014. 10. 25
출연: 백지현 교수/감염내과
프로그램: MBN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내용: 뇌병변 투병환자 치료



2014. 10. 27
출연: 김우철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매거진
내용: 사이버나이프센터 소개



2014. 10. 29
출연: 신정현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OBS 뉴스&이슈
내용: 늦가을 불청객 '건선',
증상과 예방법



2014. 11. 05
출연: 류정선 교수/
호흡기내과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금연, 여성흡연과 폐암



2014. 11. 05
출연: 신호철 원장/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프로그램: MBC 뉴스투데이
내용: 정확한 애플라
감염경로는?
과도한 공포심 자제



2014. 11. 10
출연: 최광성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법입니다
내용: 대상포진과 그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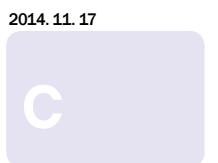
2014. 11. 10
출연: 신정현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매거진
내용: 안면홍조



2014. 11. 12
출연: 문경호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교통방송 2시뉴스
내용: 교령 굴절 사고



2014. 11. 15
출연: 현동근 교수/신경외과
프로그램: KBS 생명최전선
내용: 4분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2014. 11. 17
출연: 신정현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법입니다
내용: 아토피



2014. 11. 24
출연: 신정현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법입니다
내용: 백반증



2014. 11. 28
출연: 송준호 교수/
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매거진
내용: 대학병원의
공공의료 방향

파랑새 소식_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교육 예정

- 일 시 : 2014년 12월 11일(수), 2015년 1월 14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까지
- 내 용 :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이란? 재발 및 추후 관리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장 소 : 3층 회의실
- 대상자 : 유방암 환우 및 가족

■지난 행사

9월 23일 **야유회** 총담금산으로 이른 단풍구경을 다녀
왔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월 12일 Listen & Talk To Your body(요리경연
대회) 선배가 알려주는 유방건강 레시피라는 주제로
투병중이거나 완쾌 후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즐겨
먹던 요리를 환우에게 알려주기 위한 요리경연대회
이다. 파랑새는 '새희망'이라는 요리제목으로 목은
지와 영양쌤밥 등을 만들어서 '장금이상'을 수상하
였다.
10월 14일 핑크리본 유방건강공개강좌 유취비 무환
"가슴 벅찬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건강공개강
좌를 개최하였다.
유방암의 현황 및 최신 치료법에 대해 외과 장용선,
조영업 교수의 강의와 '김세중 교수님께 물어보세
요' 코너를 통해 환우 및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을 가졌다.

10월 19일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 여의도공원 개
최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전과 다르게 환우분들이 모
두 직접 풍선을 다리에 묶고 서로 터트리는 게임을
통해 친목도 도모하고 푸짐한 상품도 받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음 행사

- 12월 파랑새 송년회(일정 추후 공지 예정)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홈페이지 www.inha.com >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여성암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 갑상선, 당뇨병, 비만	월, 화	월, 목	*13:30~15:30 서비스진료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남문석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화, 목	화				
		관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화, 금	수				홍성빈	*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수, 금	월				
	외과	신석환	*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김소현	해외연수(2013, 12.1~2014, 11.30)							
		허운석	* 위, 위암, 소화기외과					조영업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부산중앙	월, 화, 목	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목	월, 목					
종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최윤선	* 해외연수(2014, 8.1~2015, 7.31)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장용선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임재열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목	화, 목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위암	외과 (여성암센터)	현인영	*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화, 목, 금	화, 목, 금	*13:30~15:30 서비스진료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관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화, 금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외과	김경래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월, 수	수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화, 목					
		최선근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화, 목	금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목	월,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장용선	* 유방, 내분비외과	금	목, 금					
종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13:30~15:30 서비스진료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간암	소화기내과	김영수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부인암	성형외과	김영수	* 성형외과, 미용수술, 미세수술, 피부양성질환		수, 금	목, 금	*13:30~15:30 서비스진료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이병익	* 중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진영주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화, 수, 금					송은성	* 부인과종양		월, 수, 목	수		
	외과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수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비뇨기암		비뇨기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박원희	* 중앙,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월, 화, 금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동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13:30~15:30 서비스진료		
		정석	* 담도암, 췌장암, 담석, 담도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외과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임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목	화, 목		*13:30~15:30 서비스진료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최정석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월, 화, 금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종양내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피부암		피부과	변지원	* 아토피, 피부질환, 피부암, 피부외과, 피부미용, 레이저	수, 금	월, (3.5주), 화	(): 주별 진료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폐암	호흡기내과	이흥렬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수(2.4주), (금)		: 주별 진료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진탕, 뇌혈관질환, 뇌종양, 신경외과, 신경생리, 신경진단, 뇌영상	월, (A), 금		수	▲ 뇌종양, 안면경련증, 상처신경클리닉	
		곽승민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수(금)	수, 목(1.3주)					박현선	* 뇌종양, 사이베나이프, 뇌파, 전이성종양, 뇌양막, 안면경련,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류정선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금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남해성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수, 금	화, 목,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흉부외과	김정택	* 폐질환, 심장, 흉관, 정맥류	월, 목	월			척추종양	신경외과	윤승환	* 척추종양, 사이베나이프, 척추, 척추 디스크질환	화, 목	화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화)	수,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김영삼	* 폐질환, 심장, 흉관, 정맥류		(수)	수,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김준순		* 골종양, 인공관절질환, 고관절질환, 관절염	월, 수	월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이동주		* 중앙, 상지, 수부, 관절염	목, 금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권대규		* 중앙, 소아정형, 뇌성마비, 외상	화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혈액암	혈액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화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목, 금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 IRC 홈페이지 리뉴얼



2014년 11월, 진료협력센터 IRC(Inha Refer System)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진료의뢰환자의 최신내용뿐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편리하게 의료정보를 조회하고 영상 이미지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진료의뢰예약' 신청 및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검색 등의 페이지를 신설하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IRC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시고,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진료협력센터는 앞으로도 병·의원 간 원활한 진료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의뢰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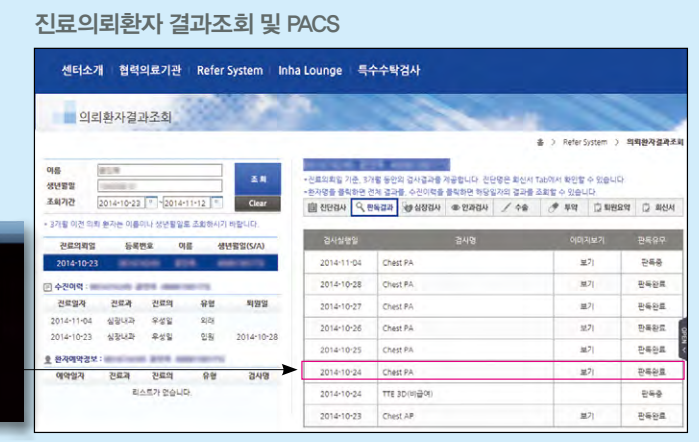
IRC(Inha Refer System) 접속 경로

1. 인하대병원(<http://www.inha.com>) 검색 → 진료협력센터로 이동
2.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http://www.inha.com/irc>) 검색

IRC 주요 기능

- Web - 진료의뢰 예약 신청
- 진료의뢰 환자 결과 및 PACS 영상 조회
진단검사, 판독결과(PACS 영상), 심장검사, 수술, 투약, 퇴원요약, 회신서
- 전원(Transfer Out) 환자 결과 및 PACS 영상 조회
진단검사, 판독결과(PACS 영상), 심장검사, 수술, 투약, 퇴원요약, 전원의회서
-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안내 및 신청
- 협력체결 신청
- 외래교수 신청

IRC 둘러보기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증축

당신의 소중한 생명,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인하대병원 최고의 가치는
바로 당신입니다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모바일 홈페이지 <http://m.inha.com>
인하대병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inhapr>